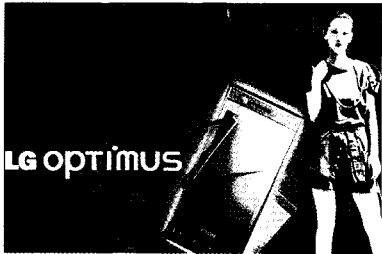


LG전자, 옵티머스Z, 디자이너 하상백과 'Z스타일' 선보인다



LG전자가 절제된 세련미를 갖춘 스타일과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 기술을 집약한 '옵티머스Z(Optimus Z, 모델명: LG-

SU950/KU9500)' 출시를 기념해 이색 패션쇼를 열었다.

'옵티머스Z'는 11.05밀리미터(mm)의 얇은 두께, 강렬한 직선의 날렵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의 '제트 스타일(Z Style)'을 구현, 기존 스마트폰과의 디자인을 차별화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

LG전자는 17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디자이너 하상백과 함께하는 'Z스타일 패션쇼'를 통해 'Z스타일'을 알리기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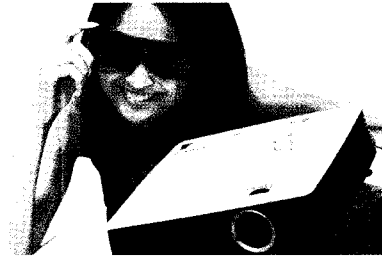
10여명의 패션 모델들이 알파벳 Z 형태의 무대에서 하상백 디자이너가 '옵티머스Z'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현대적 감각의 가을/겨울 의상과 스타일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감각적인 스타일로 국내 패션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하상백 디자이너는 이번 패션쇼 사회자를 직접 맡았을 뿐 아니라, 즉석에서 일반 관람객들의 스타일 컨설팅 제안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LG전자는 패션쇼 현장에 별도 부스를 마련, 스마트폰끼리 무선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드래그앤셰이크(Drag & Shake)', 스마트폰의 기능을 PC로 제어하는 '온 스크린 폰 (On Screen Phone)' 등 옵티머스Z만의 혁신적인 스마트라이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LG전자 MC 사업본부 CYON 마케팅팀 신현준 팀장은 "현대적 감각의 패션쇼를 통해 LG '옵티머스Z'의 스타일을 표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혁신적인 스타일과 기능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 100만원대 업무용 3D 프로젝터 출시



'이제 업무용 프로젝터도 3D 시대' LG전자가 3D 기능을 내장한 100만원대의 실속형 업무용 프로젝터(모델명

: BX327/BX277)을 16일 출시했다.

셔터 안경방식인 이 제품은 TV에 적용되는 3D 구동칩을 세계최초로 DLP(Digital Light Processing) 프로젝터에 내장해 PC나 3D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연결, 다양한 3D 영상 소스를 번거로운 변환 작업이나 유료 재생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3200안시(Ansi)(모델명:BX327)와 2700안시(모델명:BX277)의 높은 밝기와, 2,300:1의 명암비를 구현해 조명을 켜놓은 일반 대형 사무실 환경에서도 100인치 이상의 대화면으로 3D 콘텐츠를 손쉽게 감상할 수 있다.

램프 수명도 기존 DLP 방식 프로젝터(3,000 시간)보다 70% 가까이 늘어난 5,000 시간에 달해 유지관리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또, PC나 노트북 없이도 USB 메모리를 프로젝터에 꽂으면 다양한 형식의 문서, 동영상, 사진 등을 자유롭게 재생할 수 있으며, 내장된 2개의 고성능의 스피커를 통해서 어디서나 생생한 사운드까지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이동성을 크게 높였다.

LG전자 한국 HE마케팅팀 이태권 팀장은 "동급 최고의 3D 화질과 프로젝터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사용편의성을 앞세워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화면의 3D 영상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또 하나의 갤럭시 '갤럭시 U' 출시

갤럭시S를 앞세워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3.7형 아몰레드 플러스를 탑재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그림감이 뛰어난 '갤럭시 U(SHW-M130L)'를

LG U+를 통해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갤럭시 U'란 이름은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플랫폼 스마트폰 네이밍인 갤럭시에, 스타일을 완성하는 세련되고 그림감이 뛰어난 디자인(Ultimate), 선명한 3.7형 아몰레드 플러스(Ultimate), 생활 친화형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활용(Ultimarian),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즐기는 Wi-Fi로 실현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등을 상징하는 'U'를 붙인 것이다.

'안드로이드 플랫폼 2.1'에 1GHz CPU를 탑재해 빠른 터치 반응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구동과 인터넷 웹서핑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정전식 아몰레드 패널인 '아몰레드 플러스'를 탑재해 일반 아몰레드 대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3.7형 WVGA(800×480) 화면을 채택해 그림감이 뛰어나다.

국내 특화된 생활 친화형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삼성앱스, LG U+의 오즈 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또, 구글 모바일 서비스인 구글 한국어 음성 인식, 빠른 검색 창, 지도, Gmail 등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USB 3.0 지원하는 외장 하드디스크 출시

삼성전자는 19일, USB 3.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외장 하드디스크 'S2 포터블 3.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S2 포터블 3.0'은 USB 2.0 인터페이스 대비 데이터 전송속도가 최대 10배 빠른 USB 3.0을 지원하고, 7200 RPM(분당회전속도)으로 고속 구동하는 드라이브를 탑재해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USB 일체형 설계를 적용해 초소형 디자인과 저 소비전력을 구현했다. 'S2 포터블 3.0'은 실시간 또는 지정된 스케줄에 따른 '데이터 자동백업',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

(encryption)하여 저장할 수 있는 '시크릿존(SecretZone™)', 패스워드를 통한 데이터 이중보호 장치인 '세이프티키(SafetyKey™)' 등 삼성전자 외장 하드디스크 만의 차별화된 기능을 지원한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스토리지 마케팅그룹 이호성 상무는 "최근 HD급이상 고화질·고음질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보편화 되면서 빠른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고성능 외장 하드디스크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고성능, 저소음 하드디스크를 탑재하고, USB 3.0 고속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S2 포터블 3.0' 제품군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S2 포터블 3.0'은 2.5인치 디스크를 적용, 최대 640GB(기가바이트) 용량까지 출시되며, 9월부터 국내 및 미국, 유럽 등에 출시될 예정이다.

메디슨, 한국 서비스 대상 종합 대상 수상



한국 표준 협회가 선정한 2010년 한국 서비스 대상에서 메디슨이 5년 연속 의료 기기 부문 대상에 선정, 23일 시상식을 통

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서비스 대상은 서비스 경제 시대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품질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행복'을 선도하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메디슨은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서비스 품질 혁신과 고객 만족 노력을 인정받았다.

고객 만족, 고객 사랑이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메디슨은 고객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고객의 소리(VOC) 운영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고객의 불편 사항은 6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외 법인 및 대리점 직원들을 국내로 불러 서비스 교육을 받게함으로써 해외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오토닉스, 2010 IT EXPO BUSAN 참가



오토닉스는 오는 9월 8일(수)부터 11일(토)까지 4일 동안,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동남권 최대 규모의 IT 통합 전시회인 2010 IT EXPO BUSAN에 참가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오토닉스는 보간형 고속 2축 모션 컨트롤러 (PMC-2HSP 시리즈), 다축 5상 마이크로 스텝 드라이버 (MD5-HD14-2X/3X)를 비롯한 스테핑 모터/드라이버 등의 모션 디바이스 제품군을 중점 전시함으로써, 센서/제어기기 분야뿐 아니라 로봇 산업에 필수적인 모션 디바이스 분야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의 멀티턴 애플루트 로터리 엔코더 (EPM50 시리즈), 유럽 표준형 Ø58mm 로터리 엔코더 (E58/EP58 시리즈) 등의 다양한 로터리 엔코더 또한 선보이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분야 공략을 위한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입니다.

한편 오토닉스는 9월 한달 동안 2010 IT EXPO BUSAN은 물론, 9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종합 전시회인 KOFAS(국제자동차정밀기기전) 2010에도 동시 참가하여 국내 온도조절기 시장 재편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등, 부산/경남 및 수도권 지역 등 전국적인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 상반기의 높은 매출 성장세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EC, '2010년 2분기 연속 흑자 달성

국내 최대 개별 반도체 회사인 KEC(대표:곽정소)는 타임오프제 관련하여 시작된 노조 파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15.8%,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한 994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각각 22억, 21억원을 기록하여 2분기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특히 당기 순이익은 전분기 6억원보다 250% 대폭 증가한 수치로, 이번 실적은 IT가 전자 산업 호황에 따른 가 및 최근 모니터 및 TV를,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관련 부품의 국내외 오더량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또한 KEC는 2분기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한 배경에 대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 후 파업 복귀 노조원을 비롯한 제조, 간접, 신입 사원 등 전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고 협심하여 노력한 결과 조속히 생산 재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정상시의 돌발 상황을 대비한 재고 물량 확보 및 노조 파업 후 거래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취해진 점 등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KEC 구미 공장은 지난 8월 2일부터 24시간 가동을 재개하였으며 현재 정상 조업 대비 95%의 가동 회복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노텍과 5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인 LED가 패키지를 사업은 전주 공장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8월 소량 생산을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1억개 양산을 목표 사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